

창립27주년

<http://cafe.daum.net/eoullimgukak>

어울림국악연구회 제19회 정기연주회

어울림 향기 千年의 響氣를 품다 천년

축하연주 :

日本: 徳島邦楽集団, 日本全国邦楽合奏協会

여창가곡 우락 문금자

집박 : 이 의 경
前,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초대상임지휘자

해설 : 김 수 일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단원
어울림국악연구회상임고문



일시 : 2013. 10. 27 (일) 오후: 5시

장소 : 국립부산국악원 대극장(연악당)

주최·주관 : 어울림국악연구회

후원 : 부산광역시, 부산문화재단, KYOBO 교보생명, KYOBO 대산농촌문화재단

본 공연은 2013년 지역문화예술 육성지원사업의 일부로 지원받은 시민을 위한 무료공연입니다.

어울림국악연구회

어울림은....

1986년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무료 단소강습회 수료생들의 모임으로 출범하였으며 그동안 94회의 단소강습회 및 18회의 정기연주회, 80회의 가족음악회를 개최하였고 부산문화회관 토요상설무대를 비롯한 다수의 무대공연과 초청공연, 일본 초청공연과 공연 방송에도 여러 차례 출연하였습니다.

정악(전통 궁중음악)을 위주로 하여 대금, 해금, 피리, 단소, 가야금, 거문고, 타악 등의 악기부서가 있어서 각 파트의 레슨과 합주 연습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체 회관을 운영하여 회원들에게 연습실을 언제나 개방하고 있습니다.

어울림은 부산국악의 역사와 함께하고 있는 전통있는 순수 동호회 단체로서 우리 음악의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며, 연주 활동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년3~4회의 회원 모집기간에 등록하여 일정기간의 단소기본 과정 수료 후 각 전공 악기별로 소속되어 수업을 받게 되고 익숙해지면 합주에 참여하게 됩니다. 동호회 단체라서 저렴한 회비로 수업을 받을 수 있으며 수업 외에 어울림의 행사 참석이나 봉사등의 의무가 있습니다.

- ▶ 위치 : 중앙동, 동광동 인쇄골목 입구(중앙동지하철역 7번 출구에서 국제시정쪽으로 3분거리)
- ▶ 주소 : 부산시 중구 동광동4가 23-1 해광빌딩4층
- ▶ 연락처 : 회관 : 051-467-7975(아, 7시이후)
회장 : 051-442-2688(주간) Mobile : 010-7300-2688
- ▶ 홈페이지 : <http://cafe.daum.net/eoullimgukak>

제95기 가족단원모집 안내

2013년 11월~



어울림 창립27주년 제19회 정기연주회를 축하드립니다.

국립국악고등학교

제21기

안 청 락

한국소년소녀정가단

단 장 문 금 자

010-5559-6119 사)051-861-5584



(주)부산인더스트리

인쇄용 점착 테이프

대표이사 한 기 원

부산시 사하구 장림동 914-4 월드리치201호

Tel : 051)263-1441 Fax:051)263-0320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Busan Metropolitan Traditional Music Orchestra

수석지휘자 김 철 호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동 848-4 부산문화회관

Tel : 051-624-4737 / Fax : 051-625-2807



詩로서 흥을 돌우고
禮로서 서로를 높이고
樂으로서 즐거움을 나누는 좋은 세상....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수석지휘자
김철호

우리 선조님께서는 안빈낙도 자연합일, 지나침을 삼가고 소박하고 청정한 정신으로 살아가고자 하였으며, 그런 고상한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일환으로 詩와 禮와 樂을 소중하게 생각하였습니다.

詩로서 흥을 돌우고, 禮로서 서로를 높이고, 樂으로서 즐거움을 나누는 좋은 세상, 興於詩, 立於禮, 成於樂의 깊은 뜻을 한번쯤 헤아려 봐야 할것 같습니다.

우리선조님께서 물려주신 아름다운 문화유산을 옮근게 계승하고 진정으로 즐길 줄 아는 "어울림"회원들은 이시대 대한민국의 진정한 선비요, 군자이며, 成於樂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예술가입니다. 1986 아직도 전통문화가 소홀한 대접을 받던 그 시절 우리부산에서 스스로 모임을 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어려운 전통음악을 가르치고 배우며 국악의 맥을 30여년 가까이 이어왔다는 것은 정말 놀랍고 자랑스럽고 감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김수일 상임고문님을 중심으로 부산국악계의 모든 선생님들의 각별한 애정이 담긴 지도와 그동안 이렇듯 멋지고 아름답게 "어울림"을 이끌어 오신 역대회장님들과 오늘 성대한 음악회를 개최하는데 온 정열을 다 바치신 현 박명섭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고에 큰격려와 더불어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다시 한번 어울림국악연구회 제19회 정기연주회를 축하드리며, 멀리 일본에서 이번 음악회를 빛내 주시기 위해 참석해주신 후지모토레이 선생님과 하나부사 타카오 선생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부산의 자랑인 전통악회 "어울림"의 빛나는 역사와 명성과 위상이 천년만년 이어져 가기를 마음속 깊이 기원 드립니다.

2013년 10월 27일

꿈을 꾸고
꿈을 이룰 수 있는 행복한 어울림!!!



회장 박명섭

연습 공간을 마련하지 못해 동동거리며 애태우던 시절이 었그제 같은데 벌써 2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처음 초창의 공간에서 한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회원들이 직접 연탄을 날라서 난방을 했다는 선배들의 '무용담'을 안주삼아, 연습 끝나고 막걸리 한잔에 행복해 하는 회원들을 볼때면 옛 생각이 소록소록 나곤 합니다. 27년간의 인연들이 주마등처럼 회상됩니다. 오늘 이자리에도 많은 인연들이 자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만, 언제 어디서든 우리 '어울림'을 매개로 꿈을 꾸고, 꿈을 이룰 수 있는 행복한 인연이 계속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어울림'은 1986년 1기를 시작으로 이제 94기라는 성상(星霜)을 쌓아 왔습니다. 지금까지 보다 더 조심스럽게 한발 한발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울림'이 있어 행복한 저희들이 오늘 내빈 여러분들을 모시고 행복과 즐거움의 '우리음악'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행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바다 건너 일본에서 찾아주신 '덕도방악집단'의 하나부사 타카오 회장님, '일본방악합주협회'의 후지모토 레이 선생님과 단원 여러분, 그리고 부산정가회 문금자 선생님과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전학수 선생님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립니다. 또한 27년간 한결 같이 희생과 봉사로 '어울림'을 이끌어 주신 김수일 선생님, 그리고 각파트를 지도해 주시는 선생님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어울림'의 행사에 물심양면 도와 주신 모든 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어울림'에 보내주신 단원 가족 여러분들께도 오늘의 사랑과 영광을 돌려드리며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깊어가는 가을밤 귀한 걸음 해주신 내빈 여러분들께 즐거움과 행복의 여운이 남을 수 있는 연주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한국 한곡 최고는 아니더라도 최선을 다하여 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주곡목 해설

1. 관현악합주 ... 수연장지곡

원래의 이름은 도드리(通入)이고 보허자의 반복 부분 이하를 변조한 곡으로 1장단은 6박이며, 7장으로 구성된다. 나라의 연향(宴響)이나 궁중무용의 반주음악으로 널리 연주되는 곡이다.

2. 가곡 ... 우락(羽樂)

가곡은 시조시(詩調時)를 관현악 반주에 맞추어 노래하는 성악의 한 종류로 전주에 해당하는 대어울과 간주 격인 중어울을 포함하여 5장형식이며 우조(鳴조)와 계면조로 구분되고 우락은 우조에 해당 된다. 남창 26곡, 여창 15곡이 전승되고 있으며 남창과 여창, 남여 합창이 있는데 오늘은 여창으로 들려 준다.

3. 徳島邦楽集團, 日本邦楽合奏協會

1) 「千鳥の曲(ちどりのきょく)」 吉沢桜枝(よしざわ けんぎょう) 作曲
千鳥の鳴き聲を題材に取った和歌を歌詞にして江戸時代末期に作曲された。華本來の氣品と雅樂的要素を取り入れた華曲復古運動の代表作。明治以降の華曲に大きな影響を与えた曲である。華・尺八曲として演奏される。

물떼새(千鳥)의 울음 소리를 소재로 부른 和歌를 가사로 에도 시대 말기에 작곡되었다.

정(고토) 본래의 기품과 아악적 요소를 도입한 정(고토) 기악곡 복고 운동의 대표작.
메이지 이후의 정(고토) 기악곡에 큰 영향을 준 곡이다. 정(고토)·사쿠하치의 곡으로 연주된다.

2. 「郷音(さとね)」 水川寿也(みずかわ としや) 作曲
尺八の持つ5つの基本音のみで演奏され、獨奏を中間に挟んで前半の美しいハーモニ―と後半の躍動感にあふれる尺八2重奏曲である。

사쿠하치가 가진 5개의 기본 소리만으로 연주되어 독주를 중간에 두고 초반의 아름다운 화음과 후반의 악동감 넘치는 사쿠하치 2중주 곡이다.

3. 「韓國と日本~音の懸け橋」 高橋久美子(たかはし くみこ) 編曲
日本と韓國の文化交流の懸け橋になることを願って、指揮者の高橋がこの演奏會のために日本の歌と韓國の歌をメドレー形式に編曲した。「さくらさくら」の前奏で始まり、日本民謡の「八木節」、韓國民謡の「アリラン」、そして「ふるさと」が続く。

일본과 한국의 문화 교류의 가교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지휘자 타카하시가 이번 연주회를 위해 일본 노래와 한국 노래를 메들리 형식으로 편곡했다.

'사쿠라 사쿠라'의 전주로 시작하여 일본 민요의 '八木節(야기 마디)', 한국 민요의 '아리랑' 그리고 'ふるさと'가 이어진다.

4. 관현악합주 ... 중광지곡 中 염불도드리, 타령

오늘 연주하는 <염불도드리, 타령>은 관현악 합주시 세악으로 편성되며 중광지곡(현악영산회상)의 상령산, 중령산, 세령산, 가락덜이, 상현도드리, 하현도드리, 염불도드리, 타령, 군악의 9곡 중 7번째와 8번째 곡으로 오늘은 관현악 대편성으로 구성되어 연주한다.

5. 관현악합주 ... 평조 단(短)영산회상

영산회상은 고려시대에(영산회상불보살)이란 가사를 노래하던 성악곡에서 기악화되어 상령산이라는 곡이 탄생하였고, 조선후기에 이르기 까지 여러곡이 파생되어 지금의 형태로 정착되었다. 여러 종류로 구분되는데 세악으로 연주하는 중광지곡(현악 영산회상)과 이를 4도 아래로 낮추어 관현악 합주로 연주하는 유초신지곡(평조회상), 판악만으로 연주하는 표정만반지곡(관악 영산회상)의 세가지 종류가 있다. 오늘 연주하는 <단(短)영산회상>은 관현악 합주의 큰 편성으로 이루어진 유초신지곡으로 상령산, 중령산, 세령산, 가락덜이, 상현도드리, 염불도드리, 타령, 군악과 짝게 구성되어 전곡을 연주한다.

6. 단소민요제주 ... 상주모심기, 천안삼거리, 도라지타령, 노들강변

단소연주에 맞춰서 노래 부르기

Happy Birthday to you!

1. 상주모심기

1절 : 상주 함창 공감못에 연밥 따는 저 처자야 연밥 줄밥 내 따주마
우리 부모 섬겨다오 이해미 저배미 다심어 놓으니 또한 배미와 남았구나
지가야 무슨 반달이나 초승달이 반달되지

2절 : 능청능청 저비 끝에 시누 울케 마주 앉아 나도야 어서 시집가서
우리 낭군 섬길라네 고초 당초 맏다해도 시집살이만 못하더라
나도야 죽어 후생 가면 시집살이 안할라네

2. 천안삼거리

천안 삼거리 흐으으응 능수야 버들은 흐으응
제 밋에 거워서어어어 휘늘어 젖구나 흐으응
애루화 애루화 흐으으응 성화가 났구나 흐으응

3. 도라지타령

1절 : 도라지 도라지 도라지 심심산천(深深山川)에 도라지
한 두 뿌리만 캐어도 대바구니로 반(半)만 되누나,
애헤요 애헤요 애헤야야 어여라 난다/지화자 좋다
저기 저 산밑에 도라지가 한들한들

2절 : 도라지 도라지 도라지 은을 금산포(金山浦) 백도라지
한 뿌리 두 뿌리 받으니 산골에 도라지 풍년(豊年)일세

3. 노들강변

1절 : 노들강변 봄버들 휘휘 늘어진 가지에다
무정세월 한 허리를 칭칭 등어 매어 볼까.
애헤요 봄버들도 못 믿으리로다.
푸르른 저기 저 물만 흘러 흘러 가노라.

2절 : 노들강변 백사장 모래마다 밝은 자죽
만고풍상 비바람에 몇몇이나 지어갔다.
애헤요 백사장도 못 믿으리로다.
푸르른 저기 저 물만 흘러 흘러 가노라



단원소개

 심합고문 김수일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	 교수 배양현 부산대학교예술대학 한국음악학과교수	 특별지도 이의경 음.부산시립국악관현 악단인도상임지도자	 피리지도 진형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	 가야금지도 김은벨 부산가야금연주단 단원	 거문고지도 김명희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	 해금지도 박미경
 단소지도 김성순 어울림국악연구회	 회장 박명철(대금) 녹해고악연 대표	 총무부 배홍근(피리) KT & ITS	 교육부 이명주(대금) 공무원	 회계부 함준욱(해금) 한국무용	 관리부 김승환(대금) 회사원	 관리, 회계보 성재호(거문고) 회사원
 서기부 정영선(단소) 주부	 대의협력위원장 임홍재(단소) 의원은행	 홍제경사 이찬규(거문고) 회사원	 홍제경사 남경희(대금) 회사원	 악제위원 최재훈(단소) 일본어강사	 영예회원 최재훈(대금)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	 영예회원 배현지(피리)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고사
 가야금파트장 동은천(15기) 회사원	 가야금 박송주 세태디자인학대표이사	 가야금 정경애(82기) 회사원	 가야금 정라온(93기) 회사원	 거문고파트장 옥금주(60기) 내성고 교사	 거문고 이은혜(32기) 사서	 거문고 김해영(73기) 공무원
 거문고 최덕수(93기) 사서	 대금파트장 김석중(72기) 부경정보회회원	 대금 박일환(86기) 사업	 대금 도상필(87기) 주)대림 대표이사	 대금 김종관(90기) 공무원	 대금 이진배(90기) 회사원	 대금 김봉근(90기) 동덕대학교
 대금 김애희(90기) (주)유림이앤씨	 대금 장인관(92기) 국제고 교사	 대금 맹명희(92기) 부경정보회회	 대금 맹경희(92기) 간호사	 대금 맹재원(93기) 사업	 대금 맹명태(93기) 사업	 대금 맹명태(93기) 사업

단원소개

 피리 신승전(30기) 사업	 피리 송보부 조수웅(64기) 극단배우사	 피리 김수화(82기) 사업	 피리 예종로(86기) 주)교보	 피리 송병근(90기) 회사원	 해금 파트장 서경선(48기) 사업	 해금 김정석(54기) 시조영인
 해금 최수희(72기) 주부	 해금 최명영(78기) 회사원	 해금 이애자(79기) 회사원	 해금 최형화(80기) 회사원	 해금 정경자(92기) 사업	 해금 김인숙(92기) 회사원	 해금 황금살(93기) 회사원
 단소고금 파트장 박해숙(60기) 고사	 단소고금 이종남(90기) 동덕대학교재학	 단소고금 신영옥(91기) 고사	 단소고금 신대열(91기) 공무원	 단소고금 박정수(92기) 주부	 단소고금 김한준(92기) 개인택시	
 단소고금 김명희(92기) 주부	 단소고금 이명순(92기) 주부	 단소기수 김혜영(94기) 보통장학지도사	 단소기수 박정언(94기) 유치원교사	 장구 전화수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	 어항가금 문금자 부산정기단체대표	

▶타악 : 전희원

▶역대회장 : 초~2대 최영재, 3대 정우준, 4대 박호재, 5대 이건우, 6대 이진호, 7대 문상모, 8대 동용천, 9~10대 정우준, 11대 이건우, 12대 이윤희, 13~14대 김수일, 15대 김성순, 16~17대 박준영, 18~19대 이윤희, 20~21대 박충수, 22대 배홍근, 23대 이윤희, 24대 정우준, 25~28대 박명철

▶OB회원 : 이진호, 최영재, 이원호, 송경희, 유광현, 박경옥, 박호재, 김경아, 박태진, 최상숙, 박정희, 유동환, 조민욱, 서화정, 민윤식, 정주미, 신선혜, 김희, 이수희, 변미정, 광성규, 김종환, 이선희, 박현미, 문상모, 박영철, 전규진, 이상욱, 이정희, 김가영, 조영재, 박정현, 김명희, 정송욱, 이광림, 김은영, 하경희, 임동식, 서연홍, 전용란, 권화영, 진은영, 김경희, 박은지, 이성혜, 황상재, 노영숙, 박정환, 김경숙, 심영진, 윤금조, 강진우, 조성경, 박헌숙, 문혜정, 이민수, 정영락, 이수민, 광금연, 우영재, 박양미, 김영남, 강현욱, 정자, 김학준, 김경자, 조순주, 최은영, 최단오, 김태숙, 김현숙, 박희자, 윤정연, 이용세, 조원민, 한정수, 황정미, 황정화, 김은숙, 주선미, 이상민, 배연오, 허연주, 성미숙, 조현찬, 배창섭, 이현애, 이정애, 하종관, 서일석, 이석우, 정보경, 박은숙, 이태곤, 김원수, 한은숙, 임찬호, 차은숙, 차지숙, 이남성, 박준영, 정정화, 황주애, 배수철, 이효선, 이지연, 모연숙, 최은실, 김성자, 이영은, 최민희, 김성희, 김진희, 김선미, 조자윤, 최영란, 박수연, 이미연, 안수호, 정순계, 김동수, 김유승, 김병국, 김순영, 신경란, 서정석, 문경진, 이건우(천영희), 배종식(이영임), 최병화, 신수길, 김성민, 허가연, 김대일, 전희선, 조순진, 김영보, 하성자, 정종희, 양현주, 오진아, 박애영, 정우준, 백충미, 부수정, 지은주, 김병근, 노혜련, 지현철, 이천우, 강현욱, 신규환, 조형래, 김금선, 이선주, 전현미, 김소영, 김정화, 이영자, 한정남, 정충신, 구순녀, 이정우, 오세현, 양봉근, 류홍무, 정미숙, 정정미, 정연희, 정영옥, 이종인, 김군호, 박의택, 장윤석, 권은경, 부민경, 김성미